

르네상스 後期の Corset 製作에 關한 研究

金 京 姬

瑞逸大學 衣裳科 專任講師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a Corset in the Late Renaissance Age

Kim, Kyung-Hee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and Textile Design, Seoil College

Abstract

The considerations on the costumes of the past, which have been conducted to the present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new design, are not just a simple imitation, but playing a role as a re-creation of fashion. A corset, one of the underwear items, has an important role to exaggerate, emphasize, or modify the beauty of a human body. It also contributes to form a beautiful silhouette of the outerwear. Specifically, the role of a corset today is more than a physical modification: making an underwear into an outerwear; using detailed decorations or materials of an underwear in the part of other garments. In doing these, decorative functions of costumes have been more and more emphasized.

Therefore, a study on the composition or design of a corset would be an important study on the garment item that reflects fashions required by this age.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in its potential to provide reference materials needed in creating new underwear designs or the designs that can be made into outerwear products, by trying and producing a corset of the past.

To make the corset, the definition of underwear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corset were explor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materials in the foreign museums, relevant photographs, and literature. The corset was made after understanding its minute details and examining its patterns. Pattern drawing was carried out using a Pattern CAD. As an initial phase of reproducing the corsets in the 17th, 18th, and 19th centuries, the scope of the present study was limited to the late Renaissance age, when corsets began to appear.

Key words: corset(콜셋), reproducing(재현), underwear(속옷)

I. 서론

패션의 역사에는 새로운 도전과 시도에 못지 않게 과거로의 복고 움직임이 계속 있어왔으며, 밀레니엄 패션의 흐름 속에서도 과거의 고증과 모방, 그리고 재해석에 의한 현대적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디자인 창조를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과거복식에 대한 고찰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패션의

재창조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언더웨어의 아이템중 하나인 콜셋을 선택하여 디자인 및 제작방법 등의 변화를 고찰하고 또 제작을 통한 연구를 함으로써 문헌상의 시대적 고찰을 통하여 보다 새롭고 직접적인 디자인 표현기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콜셋은 인간의 인체미를 과장, 강조하고 보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겉옷의 아름다운 실

루엣 형성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콜셋의 역할은 체형보정 뿐 만 아니라 속옷을 겉옷화 하거나 속옷의 디테일 장식이나 소재를 전혀 다른 의복의 한 부분에 사용함으로써 패션에서 장식적인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콜셋의 구성이나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패션을 반영하는데 중요한 아이템 연구로 과거의 콜셋을 제작해봄으로써 현대의 속옷 디자인이나 디자이너들에 의해 겉옷으로써의 상품화될 수 있는 디자인을 창작하는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콜셋을 제작하기 위하여 외국 박물관자료와 관련 사진, 문헌 등을 참고로 하여 언더웨어의 정의 및 콜셋의 특징을 살펴보고, 콜셋을 제작하기 위하여 콜셋의 세부적인 구성사항을 파악하고 패턴을 연구한 후 제작하였다. 패턴은 Pattern CAD를 이용하여 제도하였다. 연구범위는 17·18·19세기의 콜셋을 재현하기 위한 초기 작업으로 콜셋이 나타나기 시작한 르네상스 후기로 제한하였다.

제작시 사용된 치수는 바디의 치수를 가지고 측정하였으며, 또 입체재단으로 패턴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 제작치수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II. 콜셋의 특징

콜셋과 같은 언더웨어는 체형을 자연스러운 외형으로 축소시키거나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의복의 기본형을 제공하였다. 특히 콜셋은 본래의 체형 특히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도발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콜셋은 다른 어떤 속옷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여성을 구속해 온 의복으로 16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일반화되었다. 콜셋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체형과 일반적인 육체의 쾌적함을 제한하지만 동시에 성 기관이 손상되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많은 폐단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콜셋이 오랜 세월동안 지속적으로 애용되어 온 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

이다.¹⁾

콜셋은 14세기 경 내의가 아닌 외의로 착용했던 허리에 꼭 맞는 소매 없는 조끼형태의 꼬르싸아쥬(corsage)를 전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중세에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랐기 때문에 신체교정을 목적으로 한 타이트한 콜셋은 16세기 후반 르네상스 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있다.

르네상스시대에서는 콜셋과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파팅게일(farthingale) 등 육체미를 강조하는 실루엣의 과장이 16세기에 이르러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가느다란 허리와 넓은 스커트의 강조는 여성들의 속옷을 발달시키는 요인이 되어 본격적인 콜셋은 1577년경 나타났다. 이 시대에는 콜셋이라 부르지 않고 과장적인 의상형태에 따라 바스킨(basquine), 꼬르삐게(corps-piqué)라 불려졌으며 콜셋은 18세기 이후 영국에서 불려진 명칭이다.²⁾

1530년 이후 여성적인 모습은 콜셋이나 파팅게일에 의해 규정되어졌으며, 콜셋이라는 말은 허리를 꼭 조이는 형태로 만들어진 의복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6세기 초기에는 의복을 착용할 때 가슴과 허리를 최대한 꼭 맞게 하여 바디를 딱딱하게 만들어 넓은 스커트를 더욱 돋보이도록 하였다. 따라서 바스킨은 의복을 받쳐줄 수 있을 만큼 딱딱한 형태로 이어지게 되었다.³⁾ 이러한 바스킨은 웨이스트코트(waistcoat)나 웨일본드 바디스(whaleboned bodice)라 하였으며, 바스킨의 형식은 앞이나 옆, 또는 뒤가 트인 조끼형식으로 허리 뿐만 아니라 배까지 조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단한 나무, 뿔, 고래수염, 금속, 상아 등을 형겅테이프로 써서 풀먹인 두 장의 린넨 사이에 삽입시켜 촘촘히 누빈 것으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전해진 새로운 방법이었다. 이때 삽입된 폭은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초기의 것은 3-4cm정도로 되어있다고 추측한다. 바스크(busk)를 삽입하는 부분은 주로 앞 중앙이었지만 측면, 후면, 그밖의 여러 요소에 삽입하였다.⁴⁾

린넨으로 만든 콜셋은 가슴을 울리고 평평하게 하여 호리호리한 허리선을 유지하도록 모양을 만들었다. 이러한 형태는 나무, 뿔이나 고래등뼈 같은 삽입물을 넣어 뒤나 앞의 중앙에서 레이스로 묶어 착용하였다. 이러한 콜셋은 현대의 콜셋처럼 가슴을 겁모양으로

만들지 않았고, 가슴이 좋은 모양이 되도록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게 하여 어깨끈으로 콜셋을 착용하는 곳에 고정시키고 위쪽으로 밀어넣거나 들어올리지게 하는데 필요하였다.⁵⁾ 또 중심부분의 끝이 긴 바스크는 힐파팅게일을 함께 착용하였을때 앞드레스 전체가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유행을 주기도 하였다.

꼬르베게는 1577년에 나타나 다음 세기까지 계속되었는데 종래의 바스킨보다 더 강하게 몸을 조일 수 있도록 재료의 구성법이 한층 발달된 것이다.

형태는 두 장 이상의 린넨을 겹쳐서 누벼 바스크의 딱딱함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앞, 뒤, 옆 등 주요부분에 바스크와 고래수염을 삽입시켜 형을 딱딱하게 만들고 바스크를 삽입한 부분은 바디스의 구성면에서 중요하게 되어 점차로 폭과 두께도 증가하였다.

바스크와 고래 수염이 들어간 부분의 재봉법은 섬세한 바느질로 누벼 전체를 정밀하게 장식하였다. 꼬르베게는 그후 점차로 장식화 되어 아름다운 겉감으로 싸여지고 자수장식도 하였으며 특히 앞트임의 로브가 유행되었기 때문에 꼬르베게의 앞면장식은 중요하게 되었다. 착용방법은 단순한 통형 형태의 슈미즈 위에 꼬르베게를 입어 상체를 정리하고 파팅게일을 착용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허리를 원하는 만큼 가늘게 조일 수 있는 얇은 철제의 꼬르베게가 있는데, 이것은 전후좌우의 네조각으로 되어 있으며, 앞의 가운데와 양옆에 두 장의 철판으로 된 것은 한쪽 옆에 장식이 있고 다른 옆쪽에서 고리로 잠그거나 볼트로 조이게 되어있다. 이러한 철판에는 작은 구멍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도록 디자인한 것도 보인다.

III. 콜셋 제작

콜셋의 작품은 르네상스 후기에 나타난 것으로 가슴둘레 82cm, 허리둘레 60cm의 바디 사이즈를 가지고 제작하였으며, 끈을 단 기본적인 콜셋과 어깨 끈이 없는 콜셋, 그리고 파팅게일을 고정시킬 수 있는 콜셋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1. 작품 1

1) 작품선정 배경

〈그림 1〉은 끈을 단 기본적인 콜셋으로 끈은 2.5~5cm 넓이로 하고 각각의 끈은 뒷부분부터 어깨를 지나 앞으로 묶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앞으로 올수록 끈을 점점 가늘게 하고 그 끝에 한 두개의 아일렛을 하여 코르셋 앞에 아일렛을 표시한 부분에 리본을 넣어 묶어 착용하였으며,⁶⁾ 얇은 허리까지 오는 형태였다. 앞부분을 딱딱하게 유지하기 위해 바스크를 더하였는데 이것은 나무줄기, 뿔, 고래수염, 금속, 상아 조각 등을 사용하여 린넨의 겹겹사이에 삽입하였고 끈으로 묶어 착용하였다.

2) 작품제작

작품 1은 〈그림 1〉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몸에 직접 닿는 안감은 능직의 면을 사용하고 그 위에 솜과 캔바스를 두고 정밀하게 누볐다. 바스크 대신 삽입한 보닝 테이프(bonning tape)는 나일론으로 폭은 0.8cm 인 것을 사용하였으며 겉감은 흰색의 실크를 사용하였다.

〈그림 2〉는 작품 1의 패턴으로 다음과 같다.

(1) 네크라인의 깊이는 가슴의 윗부분이 보일 정도로 정하고 어깨 끈은 앞 2cm, 뒤 4cm로 제도하였다.

(2) 어깨끈의 앞부분은 몸판과 분리하여 리본으로 연결하도록 제도하였다. 앞중심은 윗배를 누를 수 있도록 네크라인부터 30cm 길이로 하였다.

(3) 측면과 후면은 허리선을 끝선으로 하였으며 헴라인(hem-line)은 앞과 옆을 곡선으로 연결하여 제도하였다.

〈그림 3〉은 작품 1의 제작그림으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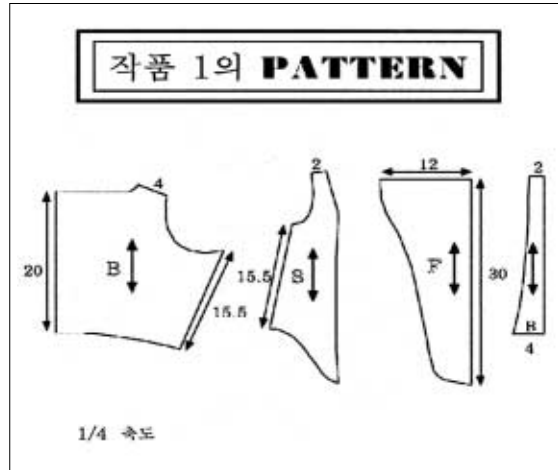
(1) 앞중심은 골선 재단을 하였고, 옆부분과 뒤는 각각 두 개로 재단하였으며 모든 부분은 안감, 겉감, 솜 그리고 캔바스를 재단하였다.

(2) 안감과 겉감은 앞, 옆 그리고 뒷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 시점을 주었고 솜과 심지로 사용되는 캔바스는 시점분을 주지 않고 재단하였다.

(3) 재단된 겉감의 안쪽면에 캔바스를 놓고 그 위에 보닝 테이프가 들어갈 자리를 정하고 보닝 테이프는



<그림 1> 클셋 (Elizabethan Costuming, p.96)



<그림 2> 작품 1의 패턴



전면



측면



후면

<그림 3> 작품 1

패턴보다 0.5cm정도 짧게 재단하여 끝을 양초 볼로 녹여 부드러운 모양으로 만들었다.

(4) 뒷중심의 아일렛 자리에는 보닝 테이프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배치된 0.8cm의 보닝 테이프는 양쪽 가장자리에서 0.2cm씩 안쪽으로 들어가 박아 걸감, 캔버스 그리고 보닝 테이프가 하나로 되도록 봉재한다.

(5) 그 위에 솜과 안감을 놓고 고정시킨 후 보닝 테이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는 걸감, 캔버스, 솜, 안

감이 하나가 되도록 4장을 같이 누빈다.

(6) 각각의 부분을 걸감은 재봉틀로 봉제하고, 안쪽의 안감은 손으로 숨은 상침하여 연결한 후 가장자리는 완성된 폭이 0.5cm가 되도록 바이어스 테이프로 감싸서 마무리한다.

(7) 분리된 앞쪽의 어깨 끈에는 아일렛 하나를, 어깨 끈과 만나는 몸판에는 아일렛을 두 개 뚫어 가죽끈을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여밈은 뒷중심에서 0.1cm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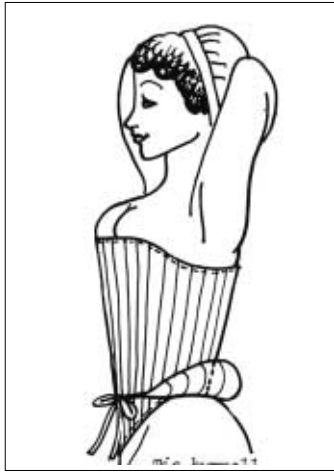
안쪽으로 들어와 중심선을 따라서 일정하게 아일렛을 양쪽에 만들어 흰색 가죽끈을 사용하여 여몄다.

평평하게 하여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것이었다. 바디스를 딱딱하게 만들어 자신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바디스 중심에 있는 바스크를 가로(역삼각형의 뒷변) 5~10cm, 세로 40cm 길이의 삼각형을 재단하였는데 바디스에 맞게 길게 또는 짧게 재단할 수 있다. 뼈, 쇠테 또는 금속 끈을 테이프로 감거나 아니면 금속, 나무 또는 플라스틱 전체 조각으로 바스크를 만드는데 너무 두껍지 않고 딱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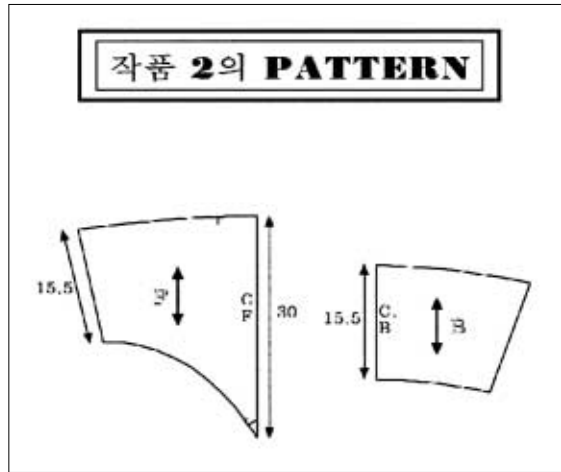
2 작품 2

1) 작품선정 배경

<그림 4>의 콜셋은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가슴을



<그림 4> 콜셋 (Elizabethan Costuming, p.91)



<그림 5> 작품 2의 패턴



전면



측면



후면

<그림 6> 작품 2

이 콜셋은 바디스 안에 바스크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삼각형 주머니를 만든 후 그 주머니에 바스크를 집어넣고 열려진 부분을 꿰매서 닫는다. 바스크를 만드는 재질은 대부분 세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바디스를 세탁할 때는 바스크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코르셋의 앞중심부분과 바스크의 같은 부분에 구멍을 뚫어 리본으로 묶어 고정하였다. 가끔 남자들에게 친밀한 애정의 표시로 바스크줄을 주기도 하였다.⁷⁾

2) 작품제작

작품 2는 <그림 4>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5>는 작품 2의 패턴으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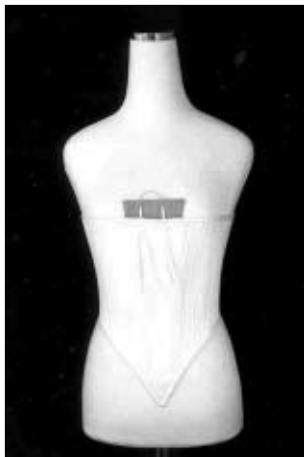
(1) 작품의 신체 사이즈보다 2cm씩 작은 사이즈인 가슴둘레 80cm, 허리둘레 58cm로 제도하였다. 이 작품은 어깨에 고정되는 끈이 없는 디자인으로 착장시 몸에 더욱 밀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앞중심은 30cm 길이로 하였고 앞중심에 폭 10cm의 삼각형 주머니를 만들어 나무로 만든 바스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였다.

(3) 뒷 중심과 연결선은 15.5cm로 정하였으며, 패턴은 옆선에서 연결되는 앞과 뒷 두 장으로 제도하였다.

<그림 6>은 작품 2의 제작그림으로 다음과 같다.

(1) 앞부분은 골선으로 재단하였으며, 어깨끈이 없고 신체 사이즈보다 가슴과 허리를 작게 제도하였으므로



<그림 7> 작품2의 바스크

바디스 전체에 힘을 주기 위해 심지로 사용되는 캔버스 두 장과 안감, 겹감, 솜, 그리고 보닝 테이프를 사용하였다.

(2) 겹감과 안감의 안쪽에 각각 심지로 사용되는 캔바스를 시침하여 고정시키고, 겹감의 캔버스 위에 보닝 테이프의 자리를 0.5cm 간격을 주고 앞중심의 바스크 자리를 제외한 콜셋 전체에 배치하여 시침실로 고정시킨다.

(3) 솜과 캔바스가 고정된 안감을 그 위에 올려놓고 보닝 테이프와 5장의 원단을 같이 세로선으로 봉제하였다.

(4) 앞중심에는 삼각형의 나무 바스크를 넣을 수 있는 안쪽 삼각주머니를 만들어 손바느질로 솜은상침하여 부착하였으며, 삼각주머니와 나무바스크를 고정하기 위해 연결구멍을 뚫어 리본으로 묶어준다(그림 7).

(5) 콜셋 전체의 외곽선은 0.5cm의 바이어스 테이프로 마무리하고 여밈은 뒷중심 양쪽에 7개씩의 아이릿을 만들어 흰색 가죽끈을 사용하여 여며다.

3. 작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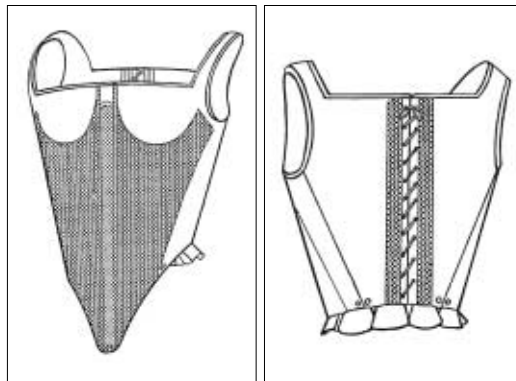
1) 작품선정 배경

<그림 8>은 콜셋 전면에 뼈대를 대고 아래 가장자리에 탭을 단 것으로, 콜셋을 묶을 때 허리 부분이 조여지면서 탭이 엉덩이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스커트의 엉덩이선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였다. 또한, 패티코트나 속치마의 허리선을 콜셋의 아래쪽에 묶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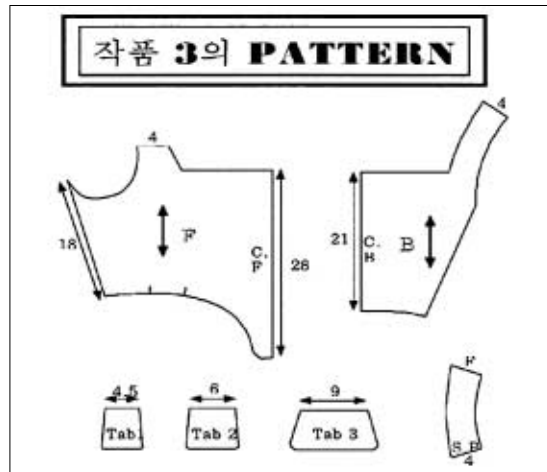
겹감과 안감을 재단한 후 두 장을 봉제하기 전에 탭을 아래 가장자리선에 단다. 이는 안감과 겹감에 각각 탭의 안감과 겹감을 단다는 것을 의미한다. 탭을 포함하여 위쪽 가장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장자리를 봉제한 후 위쪽으로 뒤집은 후, 뼈대가 들어갈 부분을 정하고 겹감과 안감을 같이 봉제한 다음 뼈대를 넣고 위쪽 가장자리를 겹에서 손바느질로 마무리한다.⁸⁾

2) 작품제작

작품 3은 <그림 8>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8> 콜셋 (Corsets And Crinolines, p.18)



<그림 9> 작품 3의 패턴



전면



측면



후면

<그림 10> 작품 3

<그림 9>는 작품 3의 패턴으로 다음과 같다.

(1) 앞과 뒤 두 장의 패턴으로 제도하였으며, 어깨 끈은 앞 뒤 분리하여 제도하였고, 뒤쪽 허리선에는 각각 크기가 다른 탭을 3장 제도하였다.

(2) 앞중심은 28cm로 네크라인이 깊게 파여 길이가 조금 짧아진 것으로 아래배를 완전히 누를 수 있는 길이로 제도하였으며, 뒷쪽 네크라인은 파임이 적으나 뒷중심길이가 허리선까지이므로 21cm로 제도하

였다.

<그림 10>은 작품 3의 제작 그림으로 다음과 같다.

(1) 겹감은 실크로 안감은 린넨으로 사용하였으며 심지는 두꺼운 캔바스를 두 장 사용하였고, 솜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보닝 테이프는 0.5cm의 것을 사용하였다.

(2) 겹감의 안쪽에 캔바스 심지를 시침하여 고정시키고 보닝 테이프의 위치를 정한다. 보닝 테이프의 자리는 앞에서는 가슴부분과 앞중심선의 2cm 폭을 제외

한 부분에 디자인한 대로 고정하고 뒤는 뒷 중심선에서 6cm까지만 보닝 테이프를 배치한다.

(3) 보닝 테이프와 4겹의 고정된 원단을 한번에 봉제한 후 가장자리는 0.5cm 폭의 바이어스 테이프로 정리하였다.

(4) 바디에 페티코트나 파팅게일을 끈으로 연결하기 위해 앞쪽과 뒷쪽의 허리선 주변에 2개씩 아일렛을 여밈 구멍으로 만들어 제작하였다.

(5) 여밈은 뒷중심 양쪽에 11개의 아일렛을 양쪽에 만들어 흰색 가죽끈을 사용하여 여웠다.

IV. 결론

새로운 디자인의 창조는 단지 상상력의 발휘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특정패션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제작방법 등을 살펴 보아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르네상스후기에 나타난 콜셋 3가지를 선택하여 끈이 있는 기본적인 콜셋과 끈이 없는 콜셋, 그리고 파팅게일을 고정시킬 수 있는 콜셋을 제작하였다. 콜셋의 사이즈는 가슴둘레 82cm, 허리둘레 60cm의 바디 사이즈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콜셋의 기본형인 작품 1은 안감은 면을 사용하고 겹감은 흰색의 실크를 사용하였다. 그 위에 솜과 캔바스를 두고 정밀하게 누웠으며, 바스크 대신 삽입한 보닝 테이프는 폭이 0.8cm인 것을 사용하였다. 앞쪽의 어깨 끈에 아일렛 하나, 어깨 끈과 만나는 몸판에 아일렛을 두 개 뚫어 가죽끈을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어깨끈이 없는 작품 2는 착장시 몸에 더욱 밀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체 사이즈보다 2cm씩 작은 사이즈인 가슴둘레 80cm, 허리둘레 58cm로 제도하였다.

앞중심은 30cm 길이로 하였고 앞중심에 10cm의 삼각형 주머니를 만들어 나무로 만든 바스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삼각주머니와 나무바스크를 고정하기 위해 연결구멍을 뚫어 리본으로 묶어 주었다.

작품 3은 파팅게일을 연결할 수 있는 콜셋으로 앞

중심은 28cm, 뒷중심은 21cm로 제도하였으며, 어깨 끈은 앞 뒤 분리하여 제도하였고, 뒤쪽 허리선에는 각각 크기가 다른 탭을 3장 제도하였다. 겹감은 실크로 안감은 린넨으로 사용하였으며 심지는 두꺼운 캔바스를 두 장 사용하였고 솜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보닝 테이프는 0.5cm의 것을 사용하였다. 바디에 페티코트나 파팅게일을 끈으로 연결하기 위해 앞쪽과 뒷쪽의 허리선 주변에 2개씩 아일렛을 여밈 구멍으로 만들어 제작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제작을 통하여 과거 콜셋의 디자인 및 디테일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지금 유행하고 있는 패션에 여성의 아름다운 육체를 표현하는 콜셋 디테일을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효과를 이룰 수 있다.

또 17·18·19세기에 착용된 콜셋을 제작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콜셋의 다양성과 화려함을 재현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김소영 · 이의정, 언더웨어, 교문사, 2001, p. 54.
- 2) 고영아 · 최현숙, Corset의 Supra현상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한국의류학회, Vol. 50. No. 4. pp. 165-180.
- 3) Doreen Yarwood, Fashion in the western world, B.T Batsford, 1992, p. 13.
- 4) 최영옥, 콜셋에 관한고찰, 안동대학교논문집, 5, 1983, p. 657.
- 5) Doreen Yarwood, op. cit., p. 22.
- 6) Winter, J. & Savoy, C., Elizabethan costuming, Other times Publications, 1987, p. 97.
- 7) Janet Winter & Carolyn Savoy, Fashion in costume, New Amsterdam, 1987, p. 42.
- 8) Winter, J. & Savoy, C., op. cit., p. 97-98.

(2003년 1월 16일 접수, 2003년 2월 4일 채택)